— 99 —

기관지 천식을 의심하는 성인환자에서 Isocapnic cold air 과호흡의 진단적 유용성

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조재화*, 이홍렬, 문태훈, 류정선, 곽승민, 조철호

Isocapnic hyperventilation of cold air(이하 IHCA)는 1980 년대초 기관지천식의 유발검사로 소개된 이후 운동 유발성 천식과 같은 기전으로 안전하고 생리적인 검사방법으로 생각되었다. 그러나 IHCA 에 대한 기관지 수축반응은 운동에 대한 반응만큼 명확하지 않았다. 찬 공기와 찬 음식에 대한 기침 및 호흡기계 증상유발은 흔히 관찰된다. 이에 저자들은 기관지 천식을 의심하는 성인들에서 IHCA 의 진단적 유용성을 알고자 1999 년 2 월부터 7 월까지 전향적으로 인하대병원에 내원한 만성기침, 호흡곤란 등 임상적으로 천식을 의심하는 환자에서 폐기능검사, 기관지유발검사와 IHCA 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임상경과, 기관지유발검사 등으로 진단한 기관지천식환자는 13 예, 비기관지 천식환자가 44 예이었다.
2. 두 군간 남녀비, 나이, 흡연자 수의 차이는 없었다(7:6 vs. 15:29, 34± 15 vs. 38± 13 year, 38% vs. 18%, p>0.05).
3. 두 군간 FEV1(%)는 기관지천식 환자군(88.7± 9.7 L)에서 비기관지천식 환자군(96.0± 20.7 L)보다 다소 낮았지만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(p>0.05).
4. IHCA 후 감소한 FEV1 백분율은 기관지천식 환자군 (-13.2± 10.4%)에서 비기관지천식 환자군 (-2.8± 2.8 %)보다 유의하게 낮았다(p<0.01).
5. IHCA 후 감소한 FEV1 백분율 -8%, -9%, -10%를 기준치로 계산한 민감도는 각각 69.2%, 53.8%, 53.8%이었고, 특이도는 각각 93.2%, 93.2%, 97.7%이었으며, 정확도는 각각 87.7%, 84.2%, 87.7%이었다.

IHCA 는 기관지 천식환자에서 민감도는 낮으나 높은 특이도를 갖으며, 진단기준치에 대해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
— 100 —

속립성 폐결핵의 임상적 특성

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박용범*, 지현석, 최재철, 김재열, 박인원, 최병휘, 허성호

연구배경 ; 결핵치료 성적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속립성 폐결핵은 중한 경과와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속립성 폐결핵의 임상양상을 살펴보고, 유발요인과 동반질환과 합병증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 ; 1990년 10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속립성 폐결핵 환자 23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연령 및 성별, 발병기간, 선행요인, 임상증상, 흉부방사선 소견, HRCT, 수반된 전신결핵, 예후 및 사망 등을 조사하였다.

결과 ;

1) 총 환자의 수는 23명이고, 남자 15명, 여자 8명이었고, 연령분포는 20대가 8명(34.8%)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, 60세 이상이 7명(30.4%)으로 나타났다.
2) 임상증상은 오한과 발열이 52.2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은 기침(43.5%)이었으며, 이학적 소견은 빈맥과 빈호흡이 34.8%, 뇌막자극증상 21.7%의 순이었다.
3) 선행요인이 있는 경우는 8명(34.8%)이며, 선행요인으로 부신피질 호르몬 사용이 4예, 당뇨가 3예, 간경변증이 2예, SLE가 2예순이었다.
4) 흉부방사선 소견상 속립상 결절이 43.5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폐경결, 늑막삼출등의 순으로 보였다.
5) 속립성 폐결핵의 진단은 항산성 간균에 대한 객담검사 및 기관지세척액에서 11예(47.8%), 폐조직검사에서 8예(34.8%)로 나타났고, 그 외 소변에서 2예, 골수검사에서 1예에서 진단되었다..
6) 폐 이외에 타장기 침범은 결핵성 뇌막염이 17%로 가장 많았다.
7) 속립성 폐결핵 전체 환자에서 3명이 사망하였으며, 이들 모두 급성호흡부전을 보였다.

결론 ; 속립성 폐결핵은 아직도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며, 조속한 진단 및 치료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.